

열왕기하 23:29-30과 역대하 35:20-27에 나타난 요시야의 죽음 보도에 대한 언어적, 고고학적 고찰

이창엽*

1. 들어가는 말

앗수르, 애굽, 바벨론 등의 큰 나라들은 ‘강 건너편 지역’ 중 해변길이 지나가는 곳에는 큰 관심을 두었지만,¹⁾ 유다가 위치한 배후지에 해당하는 내륙 지역에는 관심이 적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²⁾ 주전 640-610년에 이르기까지 앗수르가 약해진 시기에 느고(느고 2세)의 아버지 삼메티쿠스 1세(프삼티크 1세)는 아스돗 정복을 시작으로 므깃도, 베니게까지 이르는 ‘강 건너편 지역’을 지배하였다.³⁾ 주전 615년 티스리 월(9/10월)에 앗수르를 도우면서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과 대치했던 삼메티쿠스 1세처럼,⁴⁾ 그의 아들인 느고도 주전 609년에 앗수르 왕 앗수르-우발리트와 연합군을 형성한다.

*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안양대학교 구약학 교수.
changyoplee@anyang.ac.kr.

- 1) 이창엽, “느부갓네살의 강 건너편 지역에 대한 원정과 여호야김의 죽음”, 『구약논집』 21 (2021), 184. 주 8에 소개된 ‘강 건너편 지역’에 대한 논의를 참조하라. 필자의 본 논문에 언급된 ‘강 건너편 지역’은 유프라테 강 동쪽에서 서쪽을 부를 때 가리키는 지역이다.
- 2) B. U. Schipper, “Egypt and the Kingdom of Judah under Josiah and Jehoiakim”, *Tel Aviv* 37 (2010), 203.
- 3) 이창엽, “느부갓네살의 강 건너편 지역에 대한 원정과 여호야김의 죽음”, 182-183 주 3.
- 4) D. J. Wiseman, *Chronicles of Chaldaean Kings (626-556 B.C.)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British Museum, 1956), 55 BM. 21901, 앞면 10줄.

하지만 쇠락해진 앗수르는 하란을 도로 찾기 위해 두 달 동안 탈환을 시도하지만 결국에는 성공하지는 못하고, 바벨론 왕들의 연대기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고 역사에서 사라진다.⁵⁾ 앗수르를 돕기 위해 유브라테 강으로 올라갔던 애굽 왕 느고는 앗수르가 멸망한 후 바벨론 왕이 우라르투 북쪽 산지 지역 장악에 집중하는 주전 609-607년까지 바벨론의 저항이나 공격이 없는 나름 편안한 시기를 보내면서 유브라테 ‘강 건너편 지역’을 지배한다.⁶⁾ 우리의 관심 본문인 요시야의 죽음을 다루는 첫 구절인 열왕기하 23:29a는 이러한 국제 정세가 현실화되기 전에, 느고가 갈그미스(Carchemish)에 이르기 전에 므깃도에서 요시야를 만난 사건을 다루는데, 이때는 주전 609년 봄이었다.⁷⁾

구약의 역사를 연구할 때 먼저 기록된 열왕기의 보도가 기준이 되고, 이어 역대기의 기록을 보완해서 왕의 행적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유독 요시야의 죽음은 좀 더 자세히 소개하는 역대기의 기록을 참조하여 열왕기의 기록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⁸⁾ 필자는 좀 더 명확한 사실을 소개하는 역대기라는 성경으로 열왕기라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하지만, 특정 본문을 읽을 때 먼저는 그 본문이 소개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읽어야 하고, 읽고 난 다음에 이와 유사한 다른 본문과 비교 대조한다면, 먼저 읽은 본문이 제시하는 내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본 논문에서 역대기의 도움 없이 열왕기하 23:29-30에 언급되는 요시야의 죽음을 먼저 다룬다. 열왕기하 23:29b가 묘사하는 상황이 전쟁인지 혹은 회담인지 두 가

5) D. J. Wiseman, *Chronicles of Chaldaean Kings (626-556 B.C.) in the British Museum*, 55 BM. 21901, 앞면 10줄.

6) 이창엽, “느부갓네살의 강 건너편 지역에 대한 원정과 여호야김의 죽음”, 182-183.

7) 이창엽, “느부갓네살의 강 건너편 지역에 대한 원정과 여호야김의 죽음”, 181-182 주 2. 알 스트롬(G. W. Ahlström)은 느고가 즉위한 후 앗수르를 돕기 위해 갈그미스로 올라갈 때 요시야를 만났고, 요시야는 그때 유다에 대한 자신의 통치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종주인 느고를 만났다고 주장한다(G. W. Ahlström,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763-764; Z. Talshir, “The Three Deaths of Josiah and the Strata of Biblical Historiography [2 Kings 23:29-30; 2 Chronicles 35:20-25; 1 Esdras 1:23-31]”, *JT* 46 [1996], 217-218). 부족한 자료로 인해 요시야가 바로의 봉신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어렵다. 다만 유다는 지정학적으로 내륙지역인 배후지에 위치했기에, 외부의 견제 없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이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여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8) 이와 유사한 해석으로는 장미자의 주석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역대기 저자의 입장과 유사한 렘 1:11-16을 소개하면서 요시야의 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요시야가 느고를 저지하려고 한 시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한다(장미자, 『열왕기하 주석』 [서울: CLC, 2021], 563-565 참조).

지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어서 역대하 35:20-27에 언급된 역대기 저자의 요시야의 죽음 보도를 살펴본다. 세 번째로, 느고가 가졌을 ‘강 건너편 지역’ 지배에 대한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역대하 35장에서 종결 구 안쪽에 요시야의 마지막 행적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마지막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필자는 두 본문을 순서대로 읽어서 얻는 유익이 있음을 살펴본다.

2. 열왕기하 23:29-30에 나타난 요시야의 죽음

2.1. 열왕기하 23:29a에 언급된 느고의 원정

열왕기하 23:29a는 느고가 가려고 했던 최종 행선지인 유브라테 강 유역 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인물인 앓수르 왕(앓수르-우발리트)을 언급한다. 바벨론 왕들의 연대기는 느고의 유브라테 강 원정이 앓수르를 ‘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돕기 위해 느고가 올라가고자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⁹⁾ 느고의 원정이 앓수르를 도우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바벨론 왕들의 연대기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열왕기하 23:29a에 언급되는 **על-נהר-פרת** **על-מלך-אשור**을 번역하면, 이 구절은 “앓수르 왕에게, 유브라테 강 유역에”로 번역할 수 있다.¹⁰⁾ 왕세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의 재위 17년, 즉 주전 609년 봄 혹은 초여름에 느고의 군대가 앓수르 군대와 합류하여 빼앗긴 하란을 되찾으려고 했었다.¹¹⁾ 이 사실을 기반으로 열왕기하 23:29a를 읽는다면 이 구절은 느고가 앓수르 왕에게, 유브라테 강으로 간다는 사실만을 묘사한다.

9) D. J. Wiseman, *Chronicles of Chaldaean Kings (626-556 B.C.) in the British Museum*, 19; 장미자, 『열왕기하 주석』, 563; 김진수, 『열왕기 주해』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16), 450 참조.

10) R. W. Klein, *2 Chronicl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525 n.60 참조.; 배희숙, “전치사 **על**(על) 구문의 번역에 대한 고찰: 왕하 23:29와 대하 17:1하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24 (2009), 54-71. 배희숙은 ‘**על**(על)’과 ‘**אל**(אל)’이 혼용 가능하다고 보기에 굳이 ‘**על**(על)’을 ‘**אל**(אל)’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경우 굳이 “앓수르 왕에게”라는 표현을 “바벨론 왕에게” 혹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라는 표현으로 바꿀 필요도 없고, 바꾼다면 이는 시대착오적 문장이 된다.

11) D. J. Wiseman, *Chronicles of Chaldaean Kings (626-556 B.C.) in the British Museum*, 63. BM. 21901, 뒷면, 66; 이창엽, “느부갓네살의 강 건너편 지역에 대한 원정과 여호야김의 죽음”, 181-183 주 2 참조.

2.2. 열왕기하 23:29b의 상황: 전쟁 혹은 회담, 취사선택의 문제인가?

일반적으로 열왕기하 23:29-30의 기록은 요시야가 느고와 싸우다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다는 정보를 담고 있는 본문으로 이해하는데, 이 구절이 어떤 사실을 소개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왕기하 23:29b를 다시 새롭게 읽을 필요가 있다. 『개역개정』은 앗수르 왕을 치기 위해 애굽 왕 느고가 올라갔다고 번역하나, 『표준』, 『새번역』, 『공동번역』은 “앗수르 왕을 도우려고 올라갔다”라고 다르게 번역한다.¹²⁾ 여기서 우리가 열왕기하 23:29b가 제시하는 상황을 명확히 알기 위해 주목해야 할 두 단어는 ‘가다’와 ‘만나다’이다.¹³⁾ ‘만나기 위해 가다’의 결합 형태가 사용된 사무엘상 17:48; 23:28, 열왕기상 20:27 등 세 구절은 분명히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을 만나러 가는 장면을 묘사한다. 이 세 구절을 제외한 다른 구절들은 군사적인 행동과 연관되지 않는다.¹⁴⁾

열왕기하 23:29b는 요시야가 느고를 만나야 했던 이유와 므깃도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고, 느고와의 만남과 그의 죽음만을 간략하게 보도한다. 요시야가 므깃도로 간 이유에 대해 데이비스(G. I. Davies)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 그는 요시야가 선제공격을 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본다. 애굽 군대가 전략적 요충지인 므깃도를 지나갈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요시야는 느고 군대의 진로를 막아설 뿐 아니라 느고를 공격하기 위해 므깃도로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¹⁵⁾ 이 같은 해석은 요시야와 느고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이고, 요시야가 느고를 막아 맞서서 전쟁하기 위해 므깃도로 갔다고 본다. 하지만, 느고가 선제적으로 요시야를 공격하여 요시야는 결국 비명횡사한다.

데이비스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제시한다. 그는 요시야

12) 『개역개정』 왕하 23:29는 “앗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테 강으로” 『공동번역』 왕하 23:29는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을 향하여” 『표준새번역』 왕하 23:29는 “앗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쪽으로” 이렇게 각각 번역한다.

13) 『개역개정』 왕하 23:29b는 요시야가 “맞서 나갔더니”로 번역한다.

14) 창 24:65; 32:6[7]; 출 4:27; 민 24:1; 수 9:11; 삼상 17:48; 23:28; 삼하 19:15[16]; 왕상 18:16(2번); 20:27; 22:13; 왕하 8:8, 9; 9:18; 16:10; 23:29. 하세가와는 이 용례가 모두 15구절이라고 하지만 모두 17구절이다. S. Hasegawa, “Josiah’s Death: Its Reception History as Reflected in the Books of Kings and Chronicles”, *ZAW* 129 (2017), 526. 하세가와의 목록에 덧붙여져야 할 구절은 삼상 17:48, 왕상 22:13이다.

15) G. I. Davies, *Megiddo* (Cambridge: Lutterworth Press, 1986), 105. 프로스트(S. B. Frost)는 요시야의 군사적 공격은 느고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었다고 본다(S. B. Frost, “The Death of Josiah: A Conspiracy of Silence”, *JBL* 87 [1968], 381).

가 느고와 전쟁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느고의 유브라테 강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므깃도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제안했다.¹⁶⁾ 코건(M. Cogan)과 타드모어(H. Tadmor)도 열왕기하 23:29에 언급된 ‘만나기 위해 가다’의 결합 형태는 전투를 암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¹⁷⁾ 우리는 열왕기하 23:29b에서 요시야의 행동에 대한 묘사만 읽을 수 있는데, 요시야는 느고와 싸움을 하러, 맞서기 위해 나간 것이 아니라,¹⁸⁾ 느고를 만나기(מָלַךְ) 위해 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¹⁹⁾ “만나기 위해 갔다”라는 열왕기하 23:29b의 상황 묘사에서 우리는 두 왕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열왕기하 23:29가 소개하듯이 느고는 요시야를 보자, 갑자기 요시야를 죽인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열왕기하 23:29b에 언급된 “그(느고)가 그(요시야)를 보았을 때 므깃도에서 그를 죽였다”이다.²⁰⁾ 이 상황 소개 또한 실제로 므깃도에서 생긴 일이 두 나라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²¹⁾ 열왕기하 23:29-30은 역대하 35:22-23의 기록과는 달리 요시야가 죽기 전과 죽은 후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 군대와 싸웠다는 내용이 없다. 요시야가 죽은 후 그의 신하들은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므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만 소개한다(왕하 23:30a).²²⁾

16) G. I. Davies, *Megiddo*, 105.

17) M. Cogan and H. Tadmor, *2 King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8), 301. 하지만 아비오즈(M. Avioz)는 왕하 23:29에 언급된 이 두 단어의 조합은 군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요시야와 느고 사이에 전투가 있었다고 본다(M. Avioz, “What Happened at Megiddo?: Josiah’s Death as Described in the Book of Kings”, *Biblishe Notizen* 142 [2009], 7.). 그는 역대기 본문의 내용을 의지하지 않고 왕하 23:29가 전투하기 위해 요시야가 느고를 만났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약하다.

18) 『개역개정』 왕하 23:19b의 번역은 “요시야가 맞서 나갔더니”로 되어 있다. 『표준새번역』, 『새번역』, 『공동번역』은 “맞아 싸우려고 갔다”고 번역한다.

19) S. Hasegawa, “Josiah’s Death: Its Reception History as Reflected in the Books of Kings and Chronicles”, 526. 왕하 23:29b와 동일한 형태의 문장이 왕하 16:10에 등장한다. 요시야는 애굽의 왕 느고를 만나기 위해 갔고, 아하스는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에 갔다.

20) 홉스는 왕하 23:29를 “느고가 요시야를 므깃도의 전쟁터에서 죽였다”라고 마소라 본문(MT)에 없는 ‘전쟁터’라는 단어를 첨가하여 번역하였다. 그는 느고와 요시야가 서로를 적으로 여겼고, 므깃도에서 전투가 일어났다고 본다(T. R. Hobbs, *2 Kings* [Waco, Texas: Word Books, 1985], 330, 340). 홉스의 이 같은 해석은 근본적으로 역대기 저자의 요시야의 죽음과 연관된 해석을 받아들여 이를 열왕기 본문에 투사하여 전투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21) M. Noth, *The History of Israel*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0), 279.

22) 『개역개정』 왕하 23:30a에 사용된 동사(מָלַךְ의 히필형)는 죽은 요시야의 시신을 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때 운송수단은 수레 혹은 병거 모두 가능하다. מָלַךְ의 히필형 태로 사용된 구절에는 수레(삼하 6:3//대상 13:7), 병거(왕하 9:28, 왕하 23:30//대하 35:24)

느고는 요시야를 왜 제거하려고 했을까? 열왕기하 23:29는 분명한 사실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요시야와 앓수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다.²³⁾ 이 본문은 요시야의 대외 정치적 입장도 말하지 않는다. 다만 느고의 행동을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종교적 개혁을 실행에 옮겼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했던 요시야를 제거함으로써 느고는 ‘강 건너편 지역’을 지배하기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느고의 이같은 야심을 약 3개월이 지난 후 유다의 왕 여호아하스를 애굽의 사령부가 있는 리블라에 가두었다가 결국 애굽으로 잡아간 사건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애굽의 느고는 여호아하스를 대신하여 친애굽적인 입장을 가진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다. 우리는 열왕기하 23:29-30이 제공하는 정보와 이어지는 33-34절을 함께 읽을 때 느고의 정치적 야심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

열왕기하 23:29-30은 요시야의 죽음과 연관하여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한다. 열왕기하 23장 본문은 우리가 사건을 재구성하기에 필요한 충분하고 상세한 설명이 없기에 요시야의 죽음과 연관하여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함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필자는 느고가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행동했을 두 번째 가능성도 있다고 소개했지만,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더 많은 근거와 사실을 열왕기하가 제공하고 있지 않기에 열왕기하 23:29-30에 소개된 사건의 성격을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열왕기하 23:29-30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역대하 35:20-27에서 역대기 저자는 좀 더 많은 정보와 명확한 해석이 가능한 여러 사실들을 소개한다. 역대기 저자는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의 가능성 중 어떤 면을 강조

가 운송수단으로 각각 사용된다. 마소라 본문과는 달리 칠십인역(LXX) 왕하 9:28은 아하시야의 시신을 실기 위해 운송 수단을 ‘하르마(ἄρμα)’ 즉 ‘병거’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요시야의 시신을 실었던 수단은 병거였을 것으로 보인다.

- 23) 홀다의 예언과 연관하여 요시야의 죽음을 다룬 헬퍼른(B. Halpern)은 애굽과 앓수르는 동맹관계에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사실이지만, 요시야의 죽음을 기록한 열왕기 저자는 느고가 요시야를 죽임으로서 요시야는 바벨론과 동맹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앓수르와 동맹관계에 있던 것으로 바뀌게 되고, 이를 통해 역으로 애굽은 앓수르의 대적이 되었다고 역사적 관계를 변형시켜 버린 것으로 본다. 헬퍼른은 이같은 이해를 통해 요시야의 죽음은 역설적이지만 홀다의 예언은 합법적으로 성취되었다고 본다(B. Halpern, “Why Manasseh is Blamed for the Babylonian Exile: The Evolution for a Biblical Tradition”, *IT* 48 [1998], 502-503). 헬퍼른의 이 같은 해석의 출발점은 열왕기하 23:29a를 개역개정과 같은 의미로 번역한 데 기인한다(*Ibid*, 501.). 위에서 소개하였듯이 전치사 앞에 대한 번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게 되면, 헬퍼른의 주장은 잘못될 가정과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번역을 바탕으로 그가 논리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헬퍼른은 본문이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주장까지 펼친다. 우리는 열왕기 저자는 열왕기하 23:29a에서 역사적 사실을 매우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고 있는지, 그가 참조한 저본(Vorlage)이 새로운 사실을 제공하고 있기에 역대기 저자가 이를 소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저본을 확장하여 소개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역대기의 기록을 이어 살펴봄으로서 열왕기의 기록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기의 기록이 결국에는 열왕기 23:29-30에 소개되는 사건의 성격을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해석하는 2차 근거 구절이 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3. 역대하 35:20-27에 나타난 요시야의 죽음

3.1. 역대하 35:20-27의 느고의 화친 협상과 요시야의 전투

우리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열왕기하 23:29-30에서 요시야에게 일어난 사건이 회담과 전투 두 경우 모두 가능하다는 것을 위에서 살펴보았다. 열왕기하 23:29-30 본문 자체는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한다.²⁴⁾ 하지만 병행본문 전반부인 역대하 35:20b-21은 느고가 사신을 보내 화친을 요청한 회담의 성격을 보여주고, 이 회담 이후에는 협상을 거절한 요시야가 애굽의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장면으로 전환된다(22절 이하). 역대하 35:20-27은 회담과 전투 장면을 순서대로 담고 있다. 22절 이하 후반부에는 요시야가 전쟁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 줄 뿐 아니라 느고의 군대와 싸우다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죽게 되었다는 일련의 과정들을 자세히 소개한다.

먼저 20절 후반절에 언급된 “요시야가 그를 만나기 위해 나갔다”는 언급은 전투를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²⁵⁾ 열왕기하 23장에는 느

24) 배희숙, “전치사 알(ב) 구문의 번역에 대한 고찰: 왕하 23:29와 대하 17:1하의 경우”, 62.

25) 『개역개정』 대하 35:20b의 번역은 “나가서 방비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요시야가 막기 위해 나갔다고 번역하는 『표준』과 『공동번역』과 그 뜻에서 유사하다. 왕하 23:29b와 병행구절인 대하 35:20c는 ‘만나기 위해 나가다’라는 단어 조합으로 되어 있다. 『개역개정』 대하 35:20c는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로 번역한다. ‘만나기 위해서 나가다’의 경우에도 전투의 맥락에서 사용된 용례로는 민 20:20; 21:23; 수 8:14; 삿 20:31; 삼상 4:1 등이 있다. 전투의 의미가 아닌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창 14:17; 30:16 등이다. 이처럼 두 단어의 조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반드시 전투나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본문의 맥락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대하 35:20은 전투의 목적이 아닌 협상을 하기 위한 만남을 소개한다고 볼 수 있다.

왕하 23:29와는 달리 병행본문인 대하 35:20에는 느고가 치를 전쟁의 상대방이 언급되지

고와 요시야가 서로 만났다고 소개하는 반면에 역대기에는 느고와 요시야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 대신에 사신을 통해 협상하길 원하는 느고의 말만 소개된다. 21절의 느고의 말에는 주요한 지리적 정보와 신학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아래에서 전개될 논의의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35:21에 언급된 느고의 말을 일곱 문장으로 나누어 사역해 본다.

- a 그리고 그가 그에게 사신들을²⁶⁾ 보내어 이르기를
- b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유다 왕이여
- c 내가 오늘 그대를 대항해서(혹은 “그대에게”²⁷⁾) 온 것이 아니요²⁸⁾
- d 나의 전쟁의 집(בֵּית מִלְחָמָה)으로(אל) 가기 위함이다.
- e 그리고 하나님이 말하길 나로 속히 하라,
- f 당신은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을(으로부터) 거역하는 것에서 멈추시오
- g 그리고 그가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역대하 35:21e, f에 각각 언급되는 ‘엘로힘’과 21절 마지막 구절인 g절의 주어(‘그’)도 동일하게 느고가 말한 ‘엘로힘’이다.²⁹⁾ 느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므로 21절에 느고가 말하는 ‘엘로힘’은 당연히 그가 섬기는 애굽의 신을 가리킨다. 느고는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입장을 말하고 있다. 21절에 언급된 ‘엘로힘’이 애굽의 신을 가리키는 것

않지만, 유브라테 강가 갈그미스라는 전투가 벌어질 장소가 명확히 언급된다. “갈그미스를 치러”라고 번역하는 『개역개정』과 『표준』보다는 “가르그미스 전투에 참가하려고”로 번역한 『공동번역』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소개한다. 대하 35:20에는 앗수르 왕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갈그미스에 결합된 전치사 ‘베’는 ‘-에서’이고, 전치사 ‘알’은 갈그미스의 위치를 부연 설명한다.

- 26) 이미숙은 느고가 보낸 사자들(מַלְאִכִּים)은 “유다 예언자들은 아니지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느고의 경교가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이미숙, “요시야 왕의 죽음과 역대하 36장”, 『구약논단』 21 [2015], 155).
- 27) ‘엘(אל)’과 ‘알(על)’이 혼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면 두 번째 번역도 가능하다.
- 28) 칠십인역은 마소라 본문 대하 35:21c에 언급되는 2인칭 남성 단수 인칭대명사에 상응하는 어구를 ‘오다, 도착하다’라는 ήκω를 사용하여, “나는 오늘 너를 대항하여 오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한편, 에스드라스 일서 1:25에는 “나는 주 하나님에 의해 너를 대항하여 내보내지 않았다”라고 ‘내보내다’의 완료 수동형태로 소개한다.
- 29) 『개역개정』 21절에 ‘하나님’이 3번 번역된 것과는 달리 마소라 본문 21절에는 하나님이 2번 사용된다. 야벳(S. Japhet)은 21절의 하나님은 느고가 섬기는 그의 애굽 신을 가리키고, 22절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가리킨다고 본다(S. Japhet,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its Place in Biblical Thought*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89], 51). 이와는 달리 하세가와는 22절의 하나님을 소문자로 번역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는 듯하다(S. Hasegawa, “Josiah’s Death: Its Reception History as Reflected in the Books of Kings and Chronicles”, 528.)

과는 달리 역대기 저자의 입장이 담긴 22절에 언급된 ‘엘로힘’은 여호와를 가리킨다.³⁰⁾ 요시야는 종교의 영역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했었지만(대하 34:27),³¹⁾ 요시야는 정치의 영역에서 느고의 사신을 통해 전달받은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역대기 저자는 35:22b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평가한다.³²⁾ 이는 역대하 34:26-27에서 요시야가 홀다를 통해 주어진 여호와와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것과 대조된다.³³⁾ 결국, 역대기 저자는 요시야의 마지막 행적을 다루는 두 번째 전투 장면을 소개하기 전에 요시야가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21절이 소개 하듯이 느고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말을 하였고, 요시야가 느고의 말을 전해 듣고 떠나기를 싫어하고 결국 전투로 인해 죽은 것을 아는 역대기 저자는 요시야 개인이 불순종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35:22b와 같은 평가를 기록하여 역대기 저자 자신의 신학을 잘 드러낸다.

30) S. Japhet, *1 & 2 Chronicl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1057.

31) 배희숙, 『은 이스라엘 역사서: 화해와 화합을 위한 역대기 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8), 63-71 참조.

32) 마이어스(J. M. Myers)는 여호와가 느고를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느고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일 1:25에 언급된 말을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대하 35:22에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하는 역대기 서술보다 예일 1:26에 ‘여호와와의 입’이라고 언급하고 있고, 에스드라스 일서는 더 명확히 느고가 한 말이 여호와와의 말씀임을 강조한다(J. M. Myers, *1 and 2 Esdra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74], 29).

대하 35:20-27과 예일 1:23-31에 서로 차이가 나는 내용이 많다. 대하 35:21에는 느고의 말에 하나님이 언급되는 반면에 예일 1:25에는 주 하나님이 언급된 후 ‘주’가 언급된다. 예일 1:26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대체한다. 대하 35:23에는 요시야가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고 말하나, 예일 1:27에는 지휘관들이 요시야를 집중 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고 말한다. 대하 35:24a에는 부상을 당한 요시야를 부하들이 병거에서 내리게 하였다고 말하나, 예일 1:28에는 전선에서 즉시 물러가게 했다고 말한다. 이 두 경우처럼 역대기의 묘사가 좀 더 구체적이다. 대하 35:25b에는 노래하는 남자들이 여자와 함께 슬피 노래했는데, 예일 1:30에는 명예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슬피 노래한다. 대하 35:20-27와 에스드라스 일서 1:23-31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대하 35:20-27	예일 1:23-31
하나님(21절)	주 하나님(25절)
느고의 말(22절)	예레미야의 말(26절)
활쏘는 자들이 활을 쏘(23절)	에굽의 지휘관들이 공격함(27절)
병거에서 내림(24a절)	전선에서 물러남(28절)
노래하는 남자들(25절)	명예의 자리에 앉는 자들(30절)

33) H. G. M. Williamson, “The Death of Josiah and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the Deuteronomic History”, *VT* 32 (1982), 245-246; H. G. M. Williamson, *1 and 2 Chronicles* (Grand Rapids: Eerdmans, 1982), 408-411.

대화를 거절한 요시야는 몸을 돌이켜 떠나지 않고, 느고와 싸우게 된다.³⁴⁾ 그는 변장한 모습으로 느고와 전쟁을 치른다.³⁵⁾ 구체적인 전투의 장면을 결코 소개하지 않는 열왕기하 23:29와는 달리 역대하 35:23-24에는 애굽의 활 쏘는 자가 변장한 요시야를 쏘아 중상을 입혔고 중상을 입은 요시야가 다른 병거로 옮겨지고,³⁶⁾ 예루살렘으로 후송되는 장면들이 차례로 묘사된다.³⁷⁾ 열왕기하 23장에서 요시야는 므깃도에서 전투 중에 죽었고, 그의 시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밝히나 역대하 35장에는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요시야가 죽게 되었다고 밝힌다. 역대기 저자가 볼 때 요시야는 느고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느고가 한 말이 여호와와의 말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대항하였기에 요시야가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고 밝힌다. 요시야는 느고가 하나님이 사용한 도구임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으나 그러하지 못했다. 열왕기하 23:29b가 전쟁과 회담, 두 가지 가능성을 담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 저자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반부인 역대하 35:20b-21에는 회담(혹은 협상)으로 읽을 수 있고, 이어지는 22절 이하에는 전쟁의 장면을 보여 주어 우리로 하여금 협상을 거절한 요시야가 전투를 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 준다.

3.2. 느고의 ‘강 건너편 지역’ 지배와 관련된 ‘나의 전쟁의 집’에 대한 논의

느고의 사신이 말한 느고의 말(대하 35:21)에서 살펴볼 주요한 내용은 느고의 ‘강 건너편 지역’ 전반에 대한 지배력과 관련된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어구는 역대하 35:21에 언급된 ‘나의 전쟁의 집’이라는 표현이다.³⁸⁾ 21d절에 사용된 전치사 ‘엘’은 21c절에 언급된 전치

34) 왕하 23:29-30에는 ‘싸우다’(מָלַח)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여 요시야가 느고와 전투를 벌였다고 소개한다(대하 35:22).

35) 하세가와는 느고와 요시야의 므깃도 전투는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으로 이해한다(S. Hasegawa, “Josiah’s Death: Its Reception History as Reflected in the Books of Kings and Chronicles”, 531).

36) S. Japhet,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its Place in Biblical Thought*, 51. 야벳은 요시야가 비록 왕이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요시야만 활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징계의 수단인 전쟁에서 공격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Ibid., 192 참조).

37) 요시야의 변장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변장하였지만 활에 맞아 죽은 것과 유사하다(대하 18:29, 33).

38) 배희숙, 『온 이스라엘 역사서: 화해와 화합을 위한 역대기 구상』, 73. 참조. 배희숙은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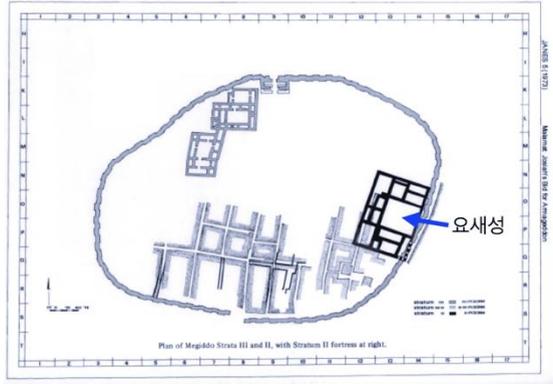
사 ‘알’과 혼용해서 사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다양한 현대어 번역들과는 그 의미를 달리 번역할 수 있다. 느고의 군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연관해서 이 구절을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기에,³⁹⁾ 필자는 위의 논의에서 역대하 35:21d를 “나의 전쟁의 집(בֵּית מִלְחָמָתִי)으로(אל) 가기 위함이다”로 번역하였다.

애굽 왕 느고가 가고자 하는 ‘나의 전쟁의 집’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느고가 ‘강 건너편 지역’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나의 전쟁의 집’에 대해 알프링크(B. Alfrink)는 ‘요새기지’(fortified base), ‘요새성’(garrison city)으로 이해하고 이에 해당하는 도시로는 갈그미스나 리블라(Riblah)에 있는 애굽 군대의 기지로 제안하였다.⁴⁰⁾ 말라마트(A. Malamat)는 역대하 35:21d에 언급된 ‘나의 전쟁의 집’은 요새기지의 역할을 담당하는 므깃도 지층 II에 해당하는 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⁴¹⁾ 말라마트와는 달리 알스트롬(G. W. Ahlström)은 주전 7세기 후반에 므깃도는 성벽이 없는 도시였고, 군사적 성격보다는 행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였다고 이해한다. 그는 므깃도가 군사적 중요성을 상실했다고 평가한다.⁴²⁾ 므깃도가 해변길이 지나가는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한 도시인 것은 분명하지만, 느고가 말한 ‘나의 전쟁의 집’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나의 전쟁의 집’이 애굽의 ‘요새기지’로 볼 수 있다는 알프링크의 제안은 여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제안이기에 다른 도시가 이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주 30에서 ‘집’ 다음에 ‘바벨론 왕’을 첨가해서 ‘바벨론 왕의 집’으로 읽어야 한다는 루돌프의 제안을 소개한다.

- 39) 『개역개정』은 이 부분을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로 번역한다. 『표준』은 『개역개정』과 번역이 유사하고, 『공동번역』은 ‘족속’이 아니라 ‘왕실’로 번역한다. 이는 “against the house with which I am at war”로 번역하는 ESV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에스드라스 일서 1:25(KJV와 NRS는 1:27, NETS는 1:25)에는 “ἐπὶ γὰρ τοῦ Εὐφράτου ὁ πόλεμος μου ἐστίν (for my war is upon Euphrates [KJV], for my war is at the Euphrates [NRS, NETS], 나의 전쟁은 유브라테 강 유역에 있다)”으로 소개한다. 이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가 유브라테 강 유역인 것을 자세히 언급하기 위함이다.
- 40) B. Alfrink, “Die Schlacht Bei Megiddo Und Der Tod Des Josias (609)”, *Biblica* 15 (1934), 176.
- 41) A. Malamat, “Josiah’s Bid for Armageddon: The Background of the Judean-Egyptian Encounter 609 B.C.”, *JANES* 5 (1973), 277, 279. 말라마트(A. Malamat)는 므깃도의 요새성 평면도를 그의 논문 279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본 논문 68쪽 본문에 차용하여 소개한다.
- 42) G. W. Ahlström,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765. 크나우프(E. A. Knauf)와 기욤(P. Guillaume)은 느고가 므깃도를 애굽의 행정중심지로서 새롭게 사용했을 것으로 본다(E. A. Knauf and P. Guillaume, *A History of Biblical Israel: The Fate of the Tribes and Kingdoms from Merenptah to Bar Kochba* [Sheffield: Equinox, 2016], 82).

<말라마트가 제안한 므깃도의 요새성>



느고는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최종 목적지로 정했다.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최종 목적지인 갈그미스이지만,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리블라를 거쳐 가야 한다. 갈그미스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지역’의 일부인 하티(Hatti)의 북쪽 끝 경계에 위치하는 반면에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사이 평지 지역에 위치한 리블라는 하티 지역으로 올라가는 출입구이며,⁴³⁾ 하티 지역의 남쪽 경계에 해당하는 도시이다. 애굽은 이 시기에 므깃도와 리블라를 장악하고 있었기에, ‘나의 전쟁의 집’의 위치가 갈그미스 보다는 리블라인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나은 대안이다.

느고는 나중에 유다의 왕이 된 여호아하스를 리블라에 가두고 폐위시킨다(왕하 23:33).⁴⁴⁾ 느고는 친애굽적인 정책을 취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운다. 훗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에도 리블라가 언급된다. 바벨론 군대는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바벨론 군대의 사령부가 설치된 리블라에 머물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로 데려간다.⁴⁵⁾ 이처럼 리블라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 지역’을 지배하는 데 전략적인 곳에 위치한 도시였기에 그곳을 차지한 나라는 시기에 따라 달라졌지만 그 나라의 군대의 사령부가 전략적 요충지인 리블라에 설치되었다.

에스드라스 일서 1:25에는 “내가 치를 전쟁은 유브라데 강 유역이다”라는 의역에 가까운 해석을 보여준다. 이보다는 느고의 사신이 말한 ‘나의 전쟁의 집’은 전쟁을 치루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느고와 애굽의 군대가 남쪽 므깃도에서 ‘나의 전쟁의

43) 이창엽, “느부갓네살의 강 건너편 지역에 대한 원정과 여호야김의 죽음”, 190-191 n.21.

44) 병행본문인 대하 36:3에는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를 폐하였다”고 말한다.

45) 이창엽, “느부갓네살의 강 건너편 지역에 대한 원정과 여호야김의 죽음”, 192.

집'으로 부른 곳인 리블라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우리가 역대하 35:20-27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의 느고는 리블라를 거쳐 유브라테 강 유역의 갈그미스에서 앗수르를 도와 빼앗긴 하란을 되찾으려고 북진하고자 했고,⁴⁶⁾ 요시야는 이를 저지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이다. 요시야는 느고의 북진을 저지함으로써 국제 정세가 바뀌는 시기에 그 큰 역사의 움직임을 바꾸어 보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당대의 국제 정세는 큰 변화가 있는 시기였다. 앗수르의 시대가 거의 저물어 가고 있었고, 신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도래할 예정이었다. 주전 609년 가을에 앗수르는 마침내 역사 가운데서 사라졌지만, 주전 609-607년까지 요시야를 죽이고 북진한 애굽 왕 느고는 '강 건너편 지역'을 잠시 지배하였다.

4. 요시야의 죽음의 이유와 궁정문서 언급의 위치(왕하 23:28; 대하 35:26-27)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역대하 35장에서 종결구 안쪽에 요시야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궁정문서가 언급(source citation)된 후 왕의 특수한 행적이 뒤이어 묘사되는 경우가 있다. 궁정문서에 대한 언급 바깥에 왕의 행적을 부록으로 소개하는 경우는 열왕기에서 모두 여섯 곳이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는 언급(왕상 14:30; 대하 12:15),⁴⁷⁾ 아사의 발에 병이 든 경우(왕상 15:23b; 대하 16:12b),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제의를 거절하고 선박을 제조하였지만 파선한 경우(왕상 22:48-49; 대하 20:36-37), 요아스가 신복들의 반역으로 암살당한 경우(왕하 12:20-21; 대하 24:25-26), 아마샤가 무리의 반역으로 라기스로 도망하여 살해된 경우(왕하 14:19-20; 대하 25:27-28)와 요시야가 므깃도에서 살해된 경우(왕하 23:29-30; 대하 35:20-27)도 이에 해당한다. 르호보암과 여호사밧의 경우 죽음과 연관되지 않는 내용이 소개된다.

열왕기의 언급과 유사하게 역대기에서도 궁정문서인 종결구 바깥에 왕의 행적이 언급되는 왕은 르호보암(대하 12:15), 아사(대하 16:12), 여호사밧

46) D. J. Wiseman, *Chronicles of Chaldaean Kings (626-556 B.C.) in the British Museum*, 63, BM. 21901, 뒷면, 61-69; J. Bright,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1), 324 참조; Y. Aharoni,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9), 405 참조.

47) H. G. M. Williamson, "Reliving the Death of Josiah: A Reply to C. T. Begg", *VT* 37 (1987), 11 n.1. 참조.

(대하 20:35-37), 아마샤(대하 25:27) 등이다.⁴⁸⁾ 네 명의 왕들처럼 열왕기에서는 궁정문서를 언급하는 종결구 바깥에 왕의 특별한 행적을 별도로 다루었지만, 역대기에는 열왕기와는 달리 왕의 죽음 보도를 종결구 앞으로 옮겨 다르게 소개되는 왕은 요아스(대하 24:23-26)⁴⁹⁾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요시야(대하 35:20-27)이다. 이러한 변형된 본문 배치는 역대기 저자가 참조한 저본이 현재의 마소라 본문 열왕기하와 달랐기에 역대기 저자는 그 저본의 순서를 따라 현재의 모습이 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역대기 저자가 요시야의 죽음을 모두 소개한 후 궁정문서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정했는지 우리는 단정할 수 없다.⁵⁰⁾ 다만 종결구 안쪽에 소개되는 요아스와 요시야 두 왕의 죽음의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열왕기하 12장에는 성전을 수리했던 요아스가 외적의 침입과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이유를 소개하지 않는다. 열왕기는 선한 왕 요아스의 딸로가 왜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담고 있지 않다. 이와는 달리 역대하 24장에는 분명하고 정당한 이유를 소개한다. 역대기 저자는 요아스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밝힌다(대하 24:20, 24).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고 요아스는 큰 부상을 입게 된다. 두 번째로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라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 것을 요아스에게 말했는데, 요아스가 이를 듣지 않았고 스가라를 돌로 쳐 죽인다. 요아스는 스가라의 피를 흘렸기에 자신의 결정과 집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하나님의 뜻이 집행되는 방식은 이방인 어머니의 이름으로 각각 언급되는 두 신하들의 반역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난다. 요아스는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요아스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는 반면에(대하 24:25),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족이 아니었지만,

48) H. G. M. Williamson, "The Death of Josiah and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44. 참조; C. T. Begg, "The Death of Josiah in Chronicles: Another View", *VT* 37 (1987), 5 n.11. 참조.

49) 역대기 저자는 다섯 구절(왕하 12:17-21)보다 두 배 많은 열 구절로 요아스의 불행한 죽음에 대한 연유를 소개하고 역대기 저자는 이를 2단계로 설명한다(대하 24:17-27)(I. Kalimi, *The Reshaping of Ancient Israelite History in Chronicles*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5], 175).

50) 윌리엄슨(H. G. M. Williamson)은 앞의 의견을 따른다(H. G. M. Williamson, "The Death of Josiah and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245.). 한편, 벡(C. T. Begg)은 역대기 저자가 참조한 저본과는 달리 역대기 저자가 신학적 원칙에 따라 열왕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현재의 본문 배치로 바꾸었다고 본다(C. T. Begg, "The Death of Josiah in Chronicles: Another View", 5, 8; H. G. M. Williamson, "Reliving the Death of Josiah: A Reply to C. T. Begg", 10 참조.).

왕의 묘실 중에(왕들과 함께) 묻히게 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대하 24:16). 역대기 저자는 요아스의 불행한 죽음과 관련하여 사람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질 뿐 아니라 왕에게 형벌이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 되었음을 일러 준다.

역대기 저자는 개인응보신학에 따라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요시야 개인의 불순종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⁵¹⁾ 열왕기에는 요시야의 의문스러운 죽음이 종결구 다음에 짧게 소개된 것과는 달리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24장에서 요아스의 죽음에 대해 불순종이라는 명백한 이유를 자세히 소개한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2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요시야의 죽음의 모호함을 걷어내고, 더욱 명확하게 요시야가 죽게 된 이유를 먼저 소개하고 종결구를 마지막으로 언급한다. 이는 역대기 저자가 요아스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 묘사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종결구로 맺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우리는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역대기 저자의 서술을 통해 요시야의 죽음은 의문의 죽음이 아니었고, 명백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점이 열왕기의 서술과 크게 다른 점이다. 역대기 저자가 사용한 저본이 현재 우리가 가진 열왕기와는 달리 전투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 요시야의 죽음을 이미 담고 있었기에 역대기 저자가 이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역대기 저자가 이에 대해 수정을 가했는지 우리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열왕기하 23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요시야의 죽음의 이유가 명확히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역대하 35장에서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덧붙인 개정과 확장이 있었음을 최종 본문에서 확인한다.

5. 나가는 말

열왕기하 23:29-30의 내용은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요시야와 느고의 만남의 성격을 전투와 회담 둘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역대기 저자는 두 단계로 나누어 일련의 사건을 서술한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35:20-27의 전반부(20b-21절)에는 협상을 소개하고, 후반부(22-24절)에는 이를 거절한 요시야가 므깃도에서 애굽의 군대와 전투하였지만 활에 맞아 죽게 된 것과 그의 불순종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소개한다. 역대하 35:21d에 언급된 ‘나의 전쟁의 집’이라는 느고의 말에는 ‘강 건너편 지역’의 정세에 대한 그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를 담고 있다. 느고는 ‘강 건너

51) 배희숙, 『온 이스라엘 역사서: 화해와 화합을 위한 역대기 구상』, 73.

너편 지역'에서 정치, 군사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과 연관되는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 역대기 저자는 역대하 35:21의 느고의 말을 신학적으로 사용하여 요시야의 죽음은 의문의 죽음이 아니라 개인응보신학에 따라 요시야 개인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에 불순종하였다는 이유를 명백히 보여준다(대하 35:22). 역대기 저자는 종결구 전에 요시야의 죽음을 신학적으로 충분히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개인응보를 강조하는 역대기 저자의 신학적 입장이 명확히 드러난다.

고대 근동의 패권이 앗수르 제국에서 결국 바벨론 제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기에 요시야는 죽었다(주전 609년 봄). 요시야가 느고를 저지하는 시도가 성공했다라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상상해 볼 수는 있지만, 이미 지나간 역사는 하나님도 바꿀 수 없다. 다만 유다 왕조의 멸망이 역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유다 역사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역대하 36장 끝에서 또한 읽는다.

<주제어>(Keywords)

요시야, 느고, 갈그미스, 므깃도, 강 건너편 지역, 리블라.

Josiah, Necho, Carchemish, Megiddo, Region beyond the River, Riblah.

(투고 일자: 2022년 7월 29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10월 14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진수, 『열왕기 주해』,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16.
- 배희숙, 『온 이스라엘 역사서: 화해와 화합을 위한 역대기 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8.
- 배희숙, “전치사 알(ל) 구문의 번역에 대한 고찰: 왕하 23:29와 대하 17:1하의 경우”, 『성경원문연구』 24 (2009), 54-71.
- 이미숙, “요시아 왕의 죽음과 역대하 36장”, 『구약논단』 21 (2015), 134-166.
- 이창엽, “느부갓네살의 강 건너편 지역에 대한 원정과 여호야김의 죽음”, 『구약논집』 21 (2021), 178-209.
- 장미자, 『열왕기하 주석』, 서울: CLC, 2021.
- Aharoni, Y., *The Land of the Bible: A Historical Geography*,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9.
- Ahlström, G. W., *The History of Ancient Palestine*,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 Alfrink, B., “Die Schlacht Bei Megiddo Und Der Tod Des Josias (609)”, *Biblica* 15 (1934), 173-184.
- Avioz, M., “What Happened at Megiddo?: Josiah’s Death as Described in the Book of Kings”, *Biblische Notizen* 142 (2009), 5-11.
- Begg, C. T., “The Death of Josiah in Chronicles: Another View”, *VT* 37 (1987), 1-8.
- Bright, J., *A History of Israe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1.
- Cogan, M. and Tadmor, H., *2 King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88.
- Davies, G. I., *Megiddo*, Cambridge: Lutterworth Press, 1986.
- Frost, S. B., “The Death of Josiah: A Conspiracy of Silence”, *JBL* 87 (1968), 369-382.
- Halpern, B., “Why Manasseh is Blamed for the Babylonian Exile: The Evolution for a Biblical Tradition”, *VT* 48 (1998), 473-514.
- Hasegawa, S., “Josiah’s Death: Its Reception History as Reflected in the Books of Kings and Chronicles”, *ZAW* 129 (2017), 522-535.
- Hobbs, T. R., *2 Kings*, Waco, Texas: Word Books, 1985.
- Japhet, S., *1 & 2 Chronicles*, Louisville, Kentucky: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 Japhet, S., *The Ideology of the Book of Chronicles and its Place in Biblical Thought*,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1989.

- Kalimi, I., *The Reshaping of Ancient Israelite History in Chronicles*, Winona Lake, Indiana: Eisenbrauns, 2005.
- Klein, R. W., *2 Chronicle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Knauf, E. A. and Guillaume, P., *A History of Biblical Israel: The Fate of the Tribes and Kingdoms from Merenptah to Bar Kochba*, Sheffield: Equinox, 2016.
- Malamat, A., “Josiah’s Bid for Armageddon: The Background of the Judean-Egyptian Encounter 609 B.C.”, *JANES* 5 (1973), 267-279.
- Myers, J. M., *1 and 2 Esdras*, Garden City,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74.
- Noth, M., *The History of Israel*,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0.
- Schipper, B. U., “Egypt and the Kingdom of Judah under Josiah and Jehoiakim”, *Tel Aviv* 37 (2010), 200-226.
- Talshir, Z., “The Three Deaths of Josiah and the Strata of Biblical Historiography (2 Kings 23:29-30; 2 Chronicles 35:20-25; 1 Esdras 1:23-31)”, *VT* 46 (1996), 213-236.
- Williamson, H. G. M., *1 and 2 Chronicles*, Grand Rapids: Eerdmans, 1982.
- Williamson, H. G. M., “Reliving the Death of Josiah: A Reply to C. T. Begg”, *VT* 37 (1987), 9-15.
- Williamson, H. G. M., “The Death of Josiah and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the Deuteronomic History”, *VT* 32 (1982), 242-247.
- Wiseman, D. J., *Chronicles of Chaldaean Kings (626-556 B.C.) in the British Museum*, London: British Museum, 1956.

<Abstract>

A Linguistic and Archaeological Study on the Reports of Josiah's Death in 2 Kings 23:29-30 and 2 Chronicles 35:20-27

Changyop Lee
(Anyang University)

Most recent studies of 2 Kings 22-23 and 2 Chronicles 34-35 have focused on Josiah's religious reform in connection with the discovery of the book of the law and Josiah's restoration of temple services. Although many of the insights from these studies are indispensable to understanding Josiah's achievements, little consideration has been relatively paid to the reading of Josiah's death in 2 Kings 23:29-30 and 2 Chronicles 35:20-27. Therefore, I would like to first argue that the final text of 2 Kings 23:29-30 itself contains both possibilities. The situation described in 2 Kings 23:29-30 can be a battle or a meeting. The author of Chronicles reports Necho's negotiation and the death of Josiah specifically. Although 2 Kings 23:29b reveals that Josiah went to meet with Necho, Necho meticulously eliminates Josiah to achieve his political purpose.

The report of Josiah's death described in 2 Chronicles 35:20-27 introduces a much more detailed view of Necho's international situation than in Kings 23:29-30. This can be deduced from the phrase 'my house of war'. It is likely that 'my house of war' is Riblah, which is strategically located to station Egyptian troops and to dominate the region beyond the river. The author of Chronicles uses the words of Necho theologically to justify Josiah's sudden death according to the theory of personal retribution. Because Josiah did not listen to Necho's words that came out of God's mouth, he died as the result. Josiah tried to stop Necho, but it was beyond his ability to change the great course of history at a time whe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was rapidly changing. Necho rules the area across the river instead of Assyria for a certain period.